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골로새서-
시편 23:1, 골로새서 2:9-10

정윤돈 목사님

* 시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골2:9-10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
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
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
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
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
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
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
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
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
기도, 전도와 모든 헌신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절대불가능한 영육 간의
그려한 선처와 아픔과 질병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
소서. 그리고 또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올인할 하
남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혹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
제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
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
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증거될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
님이 꼭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성취될 레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실현
되는 것을 체험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성취의 증인으로 쓰
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
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간 WRC(세계 램프대회)를 잘 다녀왔다. 1만 3천 석의
자리가 가득 찼고, 보조공간까지 꽉 채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70개국에서 모여
은혜와 만남의 축복을 나누었다.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롭게 다녀
올 수 있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한다. 이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목동 닮았기 리더자요 영
적 황제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참된 영적 황제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아직
도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주
실 축복의 그릇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
라고 말한다(롬14:23).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히11:1). 눈앞에 보이는 부족
함은 모두 다 지나가고 없어질 허상일 뿐이며, 진정한 실상은 오직 언약과 믿음이다.
이것을 미리 봐야 한다. 그 언약이 실제로 보이려면, 내가 가진 문제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완벽한 평안이 찾아올 정도로 깊은 300%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300%를 하는가? 사람들은 24시간 안에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70%이
하로만 떨어지면 혹사나 방전될까 봐 걱정하며 충전기를 찾는다. 그런데 왜 자신의 영
적인 상태가 방전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
를 300%기도로,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한다. 단번에 300%가 되지 않더라도 1%, 2%,
3%씩 점진적으로 올라가며 전문성과 기도가 함께 채워진다. 직장생활을 할 때도 처음
들어갈 때부터 300%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그저 월급을 받으며 먹고사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 우리 가정과 타인을 먹여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경계를 갈망할 만큼 위대
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10년, 20년을 거머쥔 거래자와 깊은
신뢰를 쌓아 결국 독립하여 거대한 사업을 일으켜낸다. 요셉과 다윗도 그러했다. 다윗
은 양을 칠 때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다. 예
배시간, 공부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짓하는 체질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대기
업 신입사원 교육 때 카메라로 태도를 모니터링하여 인재를 걸러내듯, 우리는 학교선
생님과 교회목사님, 나아가 하나님의 사신이 가장 기쁘게 머무는 절대제자가 되어야
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충
분, 모든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성령충만함으로 매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라.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미루는 자는 혼계를 싫어하는 자요, 잠든 11장 1
절의 말씀(혼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나와 정계를 싫어하는 자는 잠과
같은이라)처럼 잠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뿐이다.

서론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
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한다. 골로
새서는 에베소서의 축약판으로 불린다. 골로새교회는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제자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이다. 에베소에서 담긴 천사론, 교회론, 기독교론,
예절론 등 모든 신학적 주제가 골로새서에 압축되어 있다. 핵심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2:3)"는 위대한 진리이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모든 것에 충만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피곤한 예배의 자리에 앉았어
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인턴십을 완벽하게 마스
터하는 것이다. 신앙생활과 봉사에 헌신하는 램프들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청전을
받고 인정받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제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온전히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로 쓰임받
을 수 있다. 그리스도가 '완전, 충분,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진
실하게 흘러나올 때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보좌의 능력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 그리스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본질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며, 완
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백 년 동안 니케아 공의
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를 거치며 천체적인 신학자들
이 모여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그리고 성령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교리로 명확히 결의해 놓았다. 그 위대한 영적 전통을 따른 인물이 어거스틴이며,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이 바로 루터와 칼빈이다. 이 모든 내용이 곧 성경의 진리이다. 이
진리를 가장 잘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속한
장로교회의 뿌리이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무엇을 가장 강조하는가? 복음, 전도,
치유, 세계복음화, 흑암세력의 결박, 세상 치유, 그리고 후대 살리는 것을 강력하게 강
조한다. 누군가 "우리의 신학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신학은 장로교 신
학으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굳게 믿는 것이다. 우리는 그 영적 전통을
올곧게 따라왔다. 초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처음 가르친 것이 '12신조'였다. 12신조
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알기 쉽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당시에는 백성들의 학
력이 높지 않아 복잡하고 길게 가르칠 수 없었기에, 전체 내용을 핵심만 짚어 깔끔하
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12신조이다. 우리는 바로 그 훌륭한 신앙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오직 예수'가 되지 않는 것
이다. 과거 제사를 거부하고 핍박을 받으며 우상숭배가 극심하던 시절에는 교회에 다
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에 저절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되었
다. 하지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며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이
익을 얻으려는 사람, 장사하려는 사람,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겠다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90년대부터 한국 교회
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생겼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다녔으니까 어찌로 잘못다
고,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보니 '오직 예수'의 생명력
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서 성정에 원래 있었던 그 진리, "예수
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찾아 회복한 것이다. 이 선조에 수많은 목사님
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예수 믿고 축복
받고, 병 낫고, 돈 벌고 교회가 커지는 기복주의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다.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은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하며 복음
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의 '오직 예수'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영원한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축원한다. 우리 믿음의 선전들은 오직 예수 한 분만 바
라보았기에, 복잡한 신학을 다 알지 못해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한국이 식민지를
겪은 수많은 나라 중 유일하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선전교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오직 예수(과거에는 야소(耶蘇)라고 불렀다)' 신앙 덕분이다.
여러분도 지금 '오직 예수'로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를 축원한다. 우리가 신앙의 선전들
덕분에 이토록 큰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후대에게 그 위대한 영적 축복을 고스
란히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선조들은 가난하고 굶주린다고 보릿고개 시절에도 오직
예수가 '완전, 충분, 모든 것'임을 삼으로 고백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진실한 기도
를 다 들으셨고, 그 자녀들은 훗날 수천의 대의 거부가 되었다. 세상 지식이 없다고
무시할 수 없다. 99세 때 강남의 좋은 실버타운에 계신 고모할머니를 뵈었는데, 100
세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빠씨"하고 기도하시며 혼자 화장실을 거든듯 다녀오실
만큼 건강과 축복을 누리셨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과 응답이
완벽하게 들어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
든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신앙의 중심이 딱딱하고 잘못되면 계속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된다. 다른 것이 더 급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며 점차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
니 전도하여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삶에 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해 놓은 축복을 다 까먹다가 어느 순간 영적 황제가 터지면 그
때서야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길로 가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복음의 축
복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축복과 삶은
결코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다. 99%, 100%가 다 우리 선조와 부모님들의 간절
한 기도와 헌신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우
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충만함과 완전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골로새서는 바로 이 위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구원과 자유, 풍성함과 영육 간의 완벽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 세상의 헛된 황제들을 살리고 모든 나라를 살릴 '영적 황제'가 될 수 있는 것
이다. 골로새서 2장 10절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선포한다. 세상의 권세자와 대통령, 황제들을 움직이는 그 위에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며, 그분이 성령으로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도 그 어
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지
라도 영적 황제의 신분답게 당당히 누리며 살아야 한다. 매일 영적으로 메말라 황무한
상태로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
람, 한 사람을 완벽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오직 예수'이다. 나머지는 완벽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

1. 골로새교회의 문제들과 철학의 헛된 속임수

골로새교회는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제자 '에바브라'가 설립하
고 개척한 교회이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중 된 사랑하는 예
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기
록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당시 골
로새교회 안에 유대주의 사상과 헬라철학 사상,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한 종
교가 교묘하게 침투하여 복음과 교회를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울
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강력히 경고한다. 왜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초등학문에 불과한가? 세상 지식은 정지이
념 갈등, 전쟁, 마약, 범죄, 사형 제량, 윤명과 사수팔자 같은 인간의 근본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자체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신분으로 타락했기 때문
에, 복음 없이 쌓아 올린 세상 지식과 전문성은 결국 귀신과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오늘날 수많은 유렵 교회가 텅텅 비고 무너진 이유도 바로 복음과 성경의 절대
성을 철학적 지식으로 무시했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1) 골로새교회에 침투한 첫 번째 문제는 '그리스 로마 철학과 신화의 속임수'였다.
최근 '오지세'라는 영화를 보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전쟁을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
오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린다.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거인 사이클롭스의 동굴
에 갇혀 부하들이 잡아먹힐 때, 오디세우스는 피를 내어 거인의 눈을 찌른 뒤 자신의
이름이 "노바디(Nobody, 아무도 아니다)"라고 속여 위기를 탈출한다. 신화 속의 제우
스는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 백조로 변신하여 거짓된 잠자리를 갖는다. 이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는 거짓과 불륜, 보복으로 가득 찬 한낱 허구적인 소설일 뿐이다. 그러나 그
가상의 신화 뒤에는 네페림과 귀신의 문화가 교묘하게 숨어 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
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거대한 사상과 철학, 사탄의 문화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질질

끌고 다니며 철저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든 나쁜 일도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절대축복으로 변화된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교육을 받고,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하며 '나는 틀려먹었다, 나는 안 된다'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혀 평강의 틀린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내 영혼 깊은 곳의 각인과 뿌리까지 다 바꿔야 한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만 해도 응답이 된다. "아, 맞아,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진심으로 인정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그 응답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2) 두 번째 문제는 '영지주의 사상'이었다. 그들은 육신은 더럽고 영만 선하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부인했다. 이에 바울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골2:9)"라고 선포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소년가장으로서 목장 일을 하며 가족을 책임지셨고 십자가에서 뼈를 짚는 처절한 고통과 배신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의 몸으로 창조하시고 예언자들의 육적인 축복도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황제로 삶을 사는 것이다.

3) 세 번째 문제는 '할례주의 사상'이었다. 육신에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았다는 거짓된 율법주의다. 바울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골2:11)"를 강조했다.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육적인 나쁜 습관들은 시간표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의 나쁜 습관과 악한 것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빼거나 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강해하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선포되는 말씀 중에서 내 기준에 맞는 것만 취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빼버리면 안 된다. 단 한 가지의 말씀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야 한다.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찾아내고, 중간과정도 찾아내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찾아내야 한다.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파고들어 찾아낼수록 더 큰 응답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잘 안될 수 있다. 그럴 때는 '아, 말씀에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 나는 이 나쁜 버릇이 고쳐지지 않고, 이 습관이 끊어지지 않으며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치유되고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진실하게 기도하라. 자신의 연합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간구하기만 하더라도 반드시 응답되는 줄 굳게 믿기를 바란다. 내 육신의 힘으로 역지로 애쓰고 노력해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의 능력 안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4) 네 번째 문제는 '유대주의 율법사상'이었다. 수많은 제사제도와 절기, 안식일 등 613가지 율법 조항을 들이대며 교회를 옥죄었다. 바울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골2:16)"고 단호히 선포했다. 모든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이 났다. 오 늘날의 안식교 등 이단들은 껍데기만인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본질은 완전히 놓치고 있다.

5) 다섯째, '경건주의와 신비주의, 천사숭배 사상'이다. 바울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골2:18)"고 명했다. 겔로로는 예의법칙과 유교적 경건을 차리지만 뒤돌아서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가짜 겸손에 속지 말라. 지금도 천사나 마리아를 매개로 기도하는 이단적 전통들이 존재하며, 헛된 환상을 과장하여 복음을 어지럽히는 신비주의자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종교, 선행, 철학, 율법주의의 헛된 속임수를 완전히 부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완전, 충분, 모든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이다.

2.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다운 삶

(1)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위대함을 신학적으로 가장 정교하게 설명한다.

(1) 첫째, 그리스도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골1:14)" 죄 사함을 얻게 하신 분이다.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났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다. 남의 죄를 들추며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영화대사처럼 "너나 잘 하세요"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며 나 스스로 영적인 빛의 자녀로 굳게 서면 된다.

(2) 둘째,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골1:15) 성상위일체 하나님이다. 엄청난 비밀이다.

(3) 셋째,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골1:15-16)"이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골1:15-16)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주의 모든 왕권과 통치자들이 오직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4) 넷째, 그리스도는 "교회(골1:18)"이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1:18) 교회의 모든 운영은 사람의 고집이 아닌 오직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5) 다섯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권세자이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대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골1:19)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는다. 이 축복을 굳게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이다.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돈이 필요 없다면 평생을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영적 서민이 되어 막대한 부와 전문성을 거머쥐고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갈 영적 황제의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녔기에 예배에 집중할지 한 것 할지, 담배를 피울지 끊을지, 불평하지 감사할지를 스스로 선택한다. 더러운 욕망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재밌다"고 고백하는 참된 서민이 되어야 한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오직 예수하라고 하신다. 24 하늘 보좌의 25시 영원한 응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최고로 승리하고 성공하며, 진정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축복은 확실하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위대한 영적 권세를 매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권세로 흑암을 깨고, 가난의 저주를 깨으며, 내 삶의 모든 부족함과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고 꼭 막힌 길을 시원한 대로(大路)로 활짝 열어가기를 바란다.

2)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적용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1)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골3:1-2)"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에 초점을 맞추라. "음란, 부정, 사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나 땅에 있는 지체를 철저히 죽이라(골3:5)". "분함과 노여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골3:8-9)" 내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입에서 끊임 없이 불평과 욕설이 쏟아져 나온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골3:10))" AI시대를 뛰어넘는 세상 최고의 지식을 쌓고, 모든 것을 창조주 그리스도의 지혜로 완벽하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라.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라(골3:12-14)" 사단은 늘 교회를 분열시킨다. 상대방을 너그러워 품고 용납하라. 가정과 직장, 길에서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꼭꼭이 사랑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직장에 속한 자들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묵묵히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라. 내가 하는 모든 노동을 "주께 하듯"할 때, 로마시대에 억압받던 노예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빛이 되었던 것처럼 영적 서민의 기적을 체현하게 될 것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4:2)"

(2) 3장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골3:1-2)"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육신적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권력, 재물, 그리고 내 앞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문제가 생기는가?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영적인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흑암이 끼이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 생명을 살리는 복음캠프가 아니라 마귀캠프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땅할 수밖에 없는 악한 지체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날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령충만해지지 않으면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체질이다.

(4) 3장 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충만, 말씀충만,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레 우리 입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고 분노와 욕설,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튀어나온다.

(5) 또한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고 하신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전도와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내 영혼은 이미 병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는테요?"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내 인생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도, 선교의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내 삶의 첫째가 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고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6)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과 하신다. 복음 안에서 세상 최고의 지식을 쌓고, 그리스도 로마 철학을 뛰어넘고 앞으로 다가올 AI시대를 넉넉히 뛰어넘으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한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복음의 눈으로 재창조, 재적용,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 서민이 되어야 한다.

(7) 3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피차 용서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권면한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사함 있어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8)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중에서도 내 마음속의 평안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 절대 평안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3장 16절에 나와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며, 세상의 모든 축복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줄 굳게 믿으라.

(9) 3장 18절에서 21절은 가정생활에 대한 권면이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여 과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힘이 세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여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요즘은 오히려 자녀들이 상전이 되어 부모들이 자식 눈치를 보며 순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나 나심같이 함이라"

(10) 직장생활에 대한 권면도 있다. "중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골3:22)"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나 보며 눈가림으로 대중 일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내가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을 보라. 로마시대에 비참한 노예생활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성실히 일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국 로마의 영적 서민이 되어 세상을 정복하는 빛이 되었다.

(11) 마지막으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한다. 오늘 골로새서가 전해주는 이 아미아미하고 소중한 말씀들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결론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의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온전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랍넛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이 소중하고 어려운 실천과 모든 메시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 불감하 주셔서,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는 은혜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영적 황제, 황제자의 길을 가며 또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며,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왕, 대통령, 또 많은 서민들과 황제들까지 살릴 수 있는 영적 황제의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